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韓相範
主幹 宋赫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8131~9
本社直通@8577

每週火曜日發行

新羅·高麗때 塑造佛像등 大量出土

聖住寺 三千佛殿발굴 큰 成果

本校博物館 一次調査 크게 成果

충남 보령군 미산면 성주리에 소재한 聖住寺발굴을 위한 본교 발굴조사단(단장=黃壽永박사·박물관장) 9명(文明大장사의 7명)은 지난 10월22일부터 11월3일까지 13일간에 걸쳐 聖住寺 남쪽에 위치한 9間짜리 三千佛殿을발굴, 많은 불상을 발견하는등 대대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본조사단은 聖住寺址에대한 5차조사계획을 수립, 지난 68년에 1차 조사를 실시, 문헌조사와 아울러 전체적 측량을 마치고 발굴을 모은바 있다。

이번 三千佛殿에서 발굴된 것은 塑造 三千佛像 30여점과 蓮花紋, 唐草紋, 銘文이 새겨진 瓦類 多數, 金立之聖住寺寶碑의 한조각등으로 百濟때부터 朝鮮朝에 이르는 寺院樣式, 불교미술연구등 불교문화재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원래 이 三千佛殿은 신라 文聖王(840~856)代에 창건된 聖住寺의 일부로, 그 내부에는 毘盧舍那佛坐像을 중심으로 三千佛像이 奉安되어 있어 文聖王의 願佛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 성주사의 前身은 백제의 烏合寺로 9세기 중엽에 이르러 확충하고 寺名을 聖住寺로 바꾼 것도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에 발굴된 塑造三千佛像은 삼천불전 表十間에 散在된 무수한 塑造 三千佛의 파편중 완전한 頭部를 갖고 있는 30여점으로 9세기 대략 신라 末期 高麗代의 것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또 백제 烏合寺당시의 것으로 蓮花紋圓瓦當이의 신라·고려의 圓瓦와 唐草紋系가 많은 平瓦 다수가 출토되었으며 특히 고려의 것으로 「聖住寺」「千佛唐草」등의 글이 새겨져 있는 銘文瓦가 나왔고 近世(1578년, 嘉靖 27년)것으로 「三千佛殿」이라고 새겨진 平瓦가 보이고 있다。

이외金立之聖住寺寶碑의 「菊香手」云云의 2行 6字가 새겨진 磚조각을 발견하는등 전례없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塑造佛像등의 도굴사태가 빈번해져 발굴정리가 시급했다」고 黃壽永박사는 이번 발굴작업으로 백제 烏合寺(全王창건)와 9세기 중엽 新羅禪門九山의 하나로 창건된 聖住寺는 같은 터였음이 문헌과 일치되고 회소한 塑造佛像을 발굴, 그 가치가 고대 조각사에서 높이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三千佛殿 9間중 5間을 발굴한 결과 10월 중순 2千萬원을 들여 지난10月21日 계약을 끝냈다。동보상금중 2千萬원은 서울市郊의 管理權승인과 同時에 지불하기로 했는데 今明間으로 관리권 승인이 날 예정이며 잔액 3천5백만원은 명년에 지불하기로 했다。

장충돌장의 總坪數는 2천2백66평이며 實際可用면적은 三千坪이다。

현재 돌장 전평은 3백22평이며 돌장 크기는 大人돌장(10×25m)어린이돌장(10×13m)나이밀돌(10×13m)各1個씩이다。奬忠돌場의 관리권인수에 따라 本校는수영장內外의 시설과 電話등도 完全히 引受한다。趙昌華총무처장은 『學生들을 우선 사용케하며 일반인을 위한 개방도 고려하고있다』고 말하면서 『學生體位向上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중』이라고 使用計劃을 밝혔다。

한편 지난 73年10月27日 工事에 착수한 體育館은 今年中 완공목표로 2차工事가 現在 30%정도 진척되었으며 3층슬라브와 지붕覆蓋工事를 진행하고있다。體育館은 延建坪이 1천50평이며 5천2백명을 수용할수있는 國內 大學最大의 建物이다。

體育館에는 관리실, 탈의실, 샤워실등 기본시설과 10개의 교수연구실등을 갖추게 되며 「핸드볼」, 「배구」, 「테니스」, 排球, 「베트민턴」, 유도, 「레슬링」, 태권도, 체조, 역도등 諸競技를 개최할수 있다。

한편 本校에서는 體育館이 完工단계에 이름에따라 도로를 포함한 체육관옆 2백69평의 땅을 買入하여 駐車場, 運動部宿所등을 세울 計劃으로 있다。

또한 체육관앞의 東友塔주변의 동산 美化作業도 펴기로했다。職場새마을運動의 일환으로 사색의 길과 체육관을 통하는 도로를 확장, 도로주변에는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하여 랜퍼스美化를 위한 환경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學校주변의 美化作業에따라 大운동장 주변의 南山 一帶에는 수송개량, 식수등을 實施하여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造景事業을 펼 예정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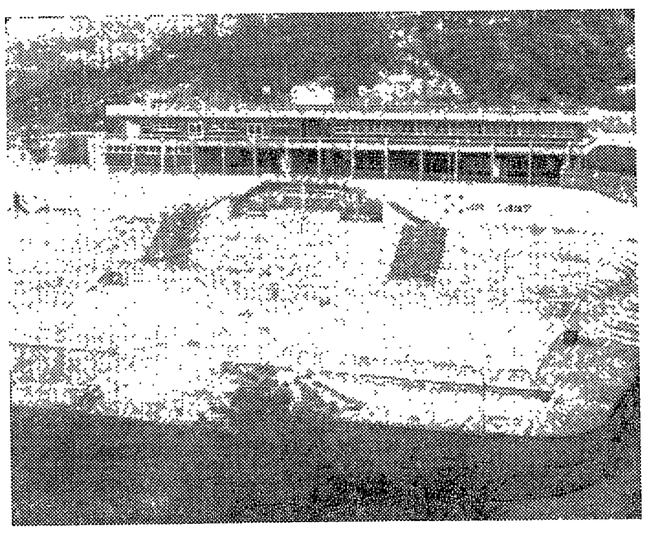
한편 기존 건물중 시설, 사육실등 기본시설과 10개의 교수연구실등을 갖추게 되며 「핸드볼」, 籠球, 「테니스」, 排球, 「베트민턴」, 유도, 「레슬링」, 태권도, 체조, 역도등 諸競技를 개최할수 있다。

한편 本校에서는 體育館이 完工단계에 이름에따라 도로를 포함한 체육관옆 2백69평의 땅을 買入하여 駐車場, 運動部宿所등을 세울 計劃으로 있다。

또한 체육관앞의 東友塔주변의 동산 美化作業도 펴기로했다。職場새마을運動의 일환으로 사색의 길과 체육관을 통하는 도로를 확장, 도로주변에는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하여 랜퍼스美化를 위한 환경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學校주변의 美化作業에따라 大운동장 주변의 南山 一帶에는 수송개량, 식수등을 實施하여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造景事業을 펼 예정으로 있다。

한편 기존 건물중 시설



◇本校에서 引受한 장충돌場 全景。

奬忠돌場, 本校서 引受

體育館 年內完工計劃

○…금학기에 접어들어 학교발전은 本校인접지인 奬忠돌場의 관리권 引受계약을 체결하는등…○

○…校勢擴張事業이 활발히 進行되고 있다。來年부터는 使用할 계획으로 있으며 體育館隣接地 2…○

○…표로 工事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體育館에 이르는 道路를 확장하기로 했으…○

○…百餘坪도 買入했다。한편, 思索의 길과 東友塔, 體育館주변의 南山一帶를 本校가 管理, 환경美化를 하기로함으로써 本校生이…○

○…며 大運動場과 돌場周邊의 南山一帶를 本校가 管理, 환경美化를 하기로함으로써 本校生이…○

○…使用할수 있는 校地는 크게擴張을 본것이다。

캠퍼스造景도 推進

本校는 지난8月, 論難이 되어오던 G建物을 宗團측과 建物明渡계약을 한 이래 校勢擴張사업을 계속推進한 끝에 장충돌장 관리권을 인수했다。

장충돌장 관리권 인수에 따른 보상금은 6천5백만원인데 財團에서 1千萬원을 들여 지난10月21日 계약을 끝냈다。동보상금중 2千萬원은 서울市郊의 管理權승인과 同時에 지불하기로 했는데 今明間으로 관리권 승인이 날 예정이며 잔액 3천5백만원은 명년에 지불하기로 했다。

장충돌장의 總坪數는 2천2백66평이며 實際可用면적은 三千坪이다。

현재 돌장 전평은 3백22평이며 돌장 크기는 大人돌장(10×25m)어린이돌장(10×13m)나이밀돌(10×13m)各1個씩이다。奬忠돌場의 관리권인수에 따라 本校는수영장內外의 시설과 電話등도 完全히 引受한다。趙昌華총무처장은 『學生들을 우선 사용케하며 일반인을 위한 개방도 고려하고있다』고 말하면서 『學生體位向上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중』이라고 使用計劃을 밝혔다。

한편 지난 73年10月27日 工事에 착수한 體育館은 今年中 완공목표로 2차工事가 現在 30%정도 진척되었으며 3층슬라브와 지붕覆蓋工事를 진행하고있다。體育館은 延建坪이 1천50평이며 5천2백명을 수용할수있는 國內 大學最大의 建物이다。

體育館에는 관리실, 탈의실, 샤워실등 기본시설과 10개의 교수연구실등을 갖추게 되며 「핸드볼」, 籠球, 「테니스」, 排球, 「베트민턴」, 유도, 「레슬링」, 태권도, 체조, 역도등 諸競技를 개최할수 있다。

한편 本校에서는 體育館이 完工단계에 이름에따라 도로를 포함한 체육관옆 2백69평의 땅을 買入하여 駐車場, 運動部宿所등을 세울 計劃으로 있다。

또한 체육관앞의 東友塔주변의 동산 美化作業도 펴기로했다。職場새마을運動의 일환으로 사색의 길과 체육관을 통하는 도로를 확장, 도로주변에는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하여 랜퍼스美化를 위한 환경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學校주변의 美化作業에따라 大운동장 주변의 南山 一帶에는 수송개량, 식수등을 實施하여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造景事業을 펼 예정으로 있다。

한편 기존 건물중 시설

法堂建立推進활발

實務幹事위촉, 募金運動도

李瑄根總長이 취임사에서 밝힌 法堂建立을 위한 基金 모금운동이 활발히 진행, 5日현재 50여만원을 모금했다。

그간 法堂建立委員會(委員長=總長)는 지난 1日 위원회를 개최하고 實務幹事에 佛大 睦楨培(哲宇)講師와 李吉仁씨를 위촉했다。

한편 同委員會고문은 이번주내로 추대키로 결정했다。

또한 佛大學生會(會長=安昌海·哲3)의 法堂建立委員會에서도 지난31日, 위원회를 소집하여 校內 모금운동시및 「리본」제용문제를 다루고 4일부터 학생회관앞에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法堂建立 基金 접수

5日現在 接受分
접수처=本館二층

▲李瑄根總長=15만5천원

▲이범수공보실장=1만원
▲朴珍錫도서관장=1만원
▲黃壽永박물관장=1만원
▲李寶水교수=5만원
▲총학생회회장단=2만8천1백40원
▲李丙疇교양학부장=1만원
▲甲宗淳行政大學院長=1만원
▲이돈환비서실장=1만원
▲各學·處長및委員11人=各 1만원, 계 11만원。
▲朴珍錫도서관장=1만원
▲黃壽永박물관장=1만원
▲李寶水교수=5만원
▲총학생회회장단=2만8천1백40원
◇累計=50만3천1백40원

行政職人事權 移讓

東國學院 定款施行令改正

東國學院理事會의획기적인 단안으로大學行政의能律性과 責任性이 李總長中心으로 강화되었다。10월14일 金邑洙理事長을 비롯한 9人의理事陣과 監事가 참석한 가운데 明星女高회의실에서열린 이사회는 東國學院定款施行令을 일부 개정, 大學行政의 責任者인 總長에게 行政職의 인사권을 이양했다。

이번 定款施行令改定을 중전에 이사장이 가지던 事務職員의 任免權을 총장에게 대폭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된 것은 「定款改正施行令」제3장 7조의 교직 이사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교직원 任免에 관한 3項으로 되어있던 종전의 조항에 이사장이 任免하고 총장이 任免하도록 규정했으며 일반사무직원(기능직포함)은 總長이 任免 또는 轉補하고 같은 절차를 밟는다。

또 조교및 부설기관의長은 총장이 任免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시간강사및 傭員은 總長이 직접 任免하도록 개정하여 총장에게 대폭 이양했다。

개정된 시행령중 대학교 規定을 보면, 總長(副總長 包含)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任免하며, 대학원장, 학장, 각부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및 전임강사는 總長의 제청으로 理事會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任免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各學處長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任免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며 課長및 일반사무직원(기능직포함)은 總長이 任免 또는 轉補하고 같은 절차를 밟는다。

또 조교및 부설기관의長은 총장이 任免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시간강사및 傭員은 總長이 직접 任免하도록 개정하여 총장에게 權限을 이양했다。

시행세칙을 東國學院의 法人및 각급학교에 상당하는 시행세칙으로 分離 개정하였다。

「宗憲·宗法」研究검토

行政·法的側面등서 考察

제1회 佛敎行政세미나

제1회 佛敎行政세미나가 「曹溪宗의 宗憲·宗法」을 주제로 지난달 31일 오후 3시부터 總務院 회의실에서 있었다。

「조계종의 宗憲·宗法에 관한 연구」를 공동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행정대학원장 甲宗淳박사의 「行政的側面」, 교양학부 교수李寶永박사(한국불교문화연구원장)의 「佛敎學的인 측면」, 張庚鶴법정대학장이 「法學的측면」에서 각각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甲宗淳행정대학원장은 불교행정은 활발히추진되어야 할분야로서 지금은 모든부문에서 재검토될 시기라고 강조하고 연구와 개선을 어느 조직의 행정에 있어서나 日常的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張庚鶴법정대학장은 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구개편의 요점을 지적하고 宗祖, 宗統, 宗旨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연구의 필요성, 조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수 있는 機關의 종류와 구성방법및 그 권한에 대해 발표했다。

李寶永박사는 宗憲등 制文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한국불교의 독특한 정신을 高揚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宗憲과 宗規, 宗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종헌·종법에 대한 검토가 새로이 요청되는 종단의 발전행정을 위해 이번 세미나는 주목할만한 문제제기로서 앞으로 불교행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敎員資格證申請

1~9日限, 敎務課

교무과에서는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1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

이번 교원자격증 신청자는 無試驗檢定願書(소정양식) 2통, 이력서(소정양식) 2통, 주민등록초본 2통 그리고 사진(반명함판) 2매와 수수료 1천원을 교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期末考査, 4~15日까지

敎授재량, 講義時間에

學期末考査가 11月 4일부터 15일 사이에 강의시간중에 敎授재량에 따라 실시된다。

지난 1日 敎務課발표 敎授재량에 따르면 中間고사는 실시하지않으며 學期末 考査는 강의시간에 敎授재량으로 筆記시험이나, 「레포트」課題物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적평가를 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吳碩奎교수華甲 記念論叢펴내

◇吳碩奎교수

吳碩奎교수 華甲記念論叢의 出版記念및 吳敎授의 回甲(지난 4月3日)축하연이 지난 30日 오후5時 「호수그릴」에서 1백5십여명의 친지·제자및內外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거행되었다。이 論叢은 英文學論文集 「東國리뷰」제5·6號合本이며 총13편의 論文이 실려있다。

◇4面참조◇

入團願書 延期

학군단, 15日마감

本校 ROTC 학군단(단장=朴三晟제112대 대령)에서는 지난 10월31일까지 접수받은 입단願書를 1년간 연기한다。

今週一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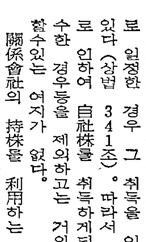
知眞爲眞,
見僞知僞,
是爲正計,
必得眞利.

진실을 알아 진실로 생각하고, 거짓을 보아 거짓으로 알면 이야말로 이것은 정당한 소견이다。그는 반드시 참 이익을 얻는다。

<法句經>

從業員持株制度의 意義와 目的

法律上의 基盤確立 시급

徐廷甲

<法政大·法學科敎授>

1、從業員持株制度의 意義와 目的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s stock ownership)라함은 종업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회사측이 각종의 계획을 설정하여 특별한 편의(株式取得金의 일부부담, 그 취득에 요하는 비용의 부담, 積立方式등에 의한 대금지급의 편의등)를 제공함으로써 그 주식취득을 촉진하고자하는 제도를 말한다。일반적으로 이제도의 효용으로서는 勞使協調策, 勞動意慾의 증진, 노동자의 이동방지, 장기안정株主의 확보, 주가의 안정, 기업자금조달의 편의등 여러가지를 들수있으나 그중에서 중요한것은 노동대책과 株主의 安定化라 할수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1809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그후 제계 각국에 전파되어 최근에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에 대하여 많이 논의되어왔고 또 이제도를 채택하고있는 회사도 점점 많아져가고 있다。다만 법률상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운영에는 현행법의 제약을 받지않을수 없게되어 여러가지 문제점을 남기고있다。그 중에서 특히 비중이 큰 상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보면 다음과같다。

2、從業員에의 新株發行

종업원지주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첫째로 문제되는것은 종업원에 취득시킬 주식의 供給源을 어디에서 구할것인가이다。이것은 新株와 旣發行株의 두가지로 대별할수있다。

먼저 신주에 관하여보면 종업원에대한 新株引受權付與(제3자배정) 失權株 또는 공모주에 대한 우선응모권의 부여등을 생각할수있다。

이중에서 종업원에 대한 신주인수권 또는 시장에서의 취득을 생각할수있다。이들중 회소한 塑造佛像을 발견, 그 가치가 고대 조각사에서 높이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三千佛殿 9間중 5間을 발굴한 결과 10월 중순 2千萬원을 들여 지난10月21日 계약을 끝냈다。동보상금중 2千萬원은 서울市郊의 管理權승인과 同時에 지불하기로 했는데 今明間으로 관리권 승인이 날 예정이며 잔액 3천5백만원은 명년에 지불하기로 했다。

장충돌장의 總坪數는 2천2백66평이며 實際可用면적은 三千坪이다。

현재 돌장 전평은 3백22평이며 돌장 크기는 大人돌장(10×25m)어린이돌장(10×13m)나이밀돌(10×13m)各1個씩이다。奬忠돌場의 관리권인수에 따라 本校는수영장內外의 시설과 電話등도 完全히 引受한다。趙昌華총무처장은 『學生들을 우선 사용케하며 일반인을 위한 개방도 고려하고있다』고 말하면서 『學生體位向上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중』이라고 使用計劃을 밝혔다。

한편 지난 73年10月27日 工事에 착수한 體育館은 今年中 완공목표로 2차工事가 現在 30%정도 진척되었으며 3층슬라브와 지붕覆蓋工事를 진행하고있다。體育館은 延建坪이 1천50평이며 5천2백명을 수용할수있는 國內 大學最大의 建物이다。

體育館에는 관리실, 탈의실, 샤워실등 기본시설과 10개의 교수연구실등을 갖추게 되며 「핸드볼」, 籠球, 「테니스」, 排球, 「베트민턴」, 유도, 「레슬링」, 태권도, 체조, 역도등 諸競技를 개최할수 있다。

한편 本校에서는 體育館이 完工단계에 이름에따라 도로를 포함한 체육관옆 2백69평의 땅을 買入하여 駐車場, 運動部宿所등을 세울 計劃으로 있다。

또한 체육관앞의 東友塔주변의 동산 美化作業도 펴기로했다。職場새마을運動의 일환으로 사색의 길과 체육관을 통하는 도로를 확장, 도로주변에는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하여 랜퍼스美化를 위한 환경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學校주변의 美化作業에따라 大운동장 주변의 南山 一帶에는 수송개량, 식수등을 實施하여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造景事業을 펼 예정으로 있다。

한편 기존 건물중 시설

韓國經濟와 換率문제

◇……經濟學敎科書에는 換率이 引上되면 輸出이 增加하고……◇
◇……輸入이 減小한다고 쓰여져 있다. 그러면 이러한 原……◇
◇……理가 우리나라 經濟에도 그대로 適用될 것인가에대……◇
◇……하여는 여러가지 의구심이 있다. 輸出用原資材의輸入……◇
◇……依存度가높고 石油, 原鑛, 原木등을全的으로輸入하고있……◇
◇……는 우리나라의 産業構造下에서는 換率이 引上되어도……◇
◇……輸入抑制効果는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

—換率引上이 韓國經濟에 미친영향—

錢 昌 源
〈經商大學長・經濟學博士〉

一、머리말

우리나라의 高度經濟成長을 주도해온 輸出이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하고 최근의 經濟不況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國際收支의 不均衡이 더욱 擴大될 움직임이 엿보여 특히 貿易業界에서는 輸出不振과 經濟不況의 타개책으로 强力하게 換率의 引上을 요구하고 있다。

輸出展望의 豫測指標인 信用狀來到額은 9月末現在 33억 8백만달러로 수출실적보다 1억 7천 4백만달러를 下廻하고 있으며 增加率面에서도 前年 同期보다 28%增으로 수출증가율 65・8%에 크게 未達하고 있는 실정이다。信用狀의 月別來到趨勢를 보면 1月부터 7月까지는 모두 전년수준을 능가하였으나, 8月은 이같은 水準으로 떨어졌고 9월은 前年同月보다 오히려 8%減少하였다。

특히 9月은 75年上半期輸出을 위한 계약성수기로서 信用狀이 크게 來到해야될에도 불구하고 今年 9月중의 信用狀來到額 2억 9천5백만달러는 前年 同期보다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올들어 最低水準을 유지하고 있어 75年의 輸出展望이 어두운 실정이다。

商品別로 보면 生絲와 그 製品, 被服, 纖維製品, 合板등의 輸出이 크게 不振한 실정이고 鐵鋼材, 선박, 타이어및 류브, 합성수지제품 등의 輸出이前年보다 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표1>韓國의 改編貿易指數및 交易條件 (1970=100)

	數量指數 輸出	數量指數 輸入	單價指數 輸出	單價指數 輸入	純商品交易條件	所得交易條件
1973	305.2 (56.8)	158.1 (26.0)	126.5 (26.6)	135.2 (33.5)	93.6 (—5.1)	285.5 (48.8)
73 1.4	239.7 (77.0)	138.9 (37.1)	107.3 (8.5)	111.8 (10.3)	96.0 (—1.5)	230.0 (74.2)
2.4	287.3 (56.6)	176.1 (33.5)	120.7 (20.5)	128.3 (27.3)	94.1 (—5.3)	270.3 (48.2)
3.4	323.4 (53.6)	160.3 (25.8)	128.4 (25.0)	138.1 (34.9)	93.0 (—7.3)	300.7 (42.4)
4.4	374.4 (54.3)	159.8 (25.4)	(140.3) (39.5)	158.0 (53.0)	88.8 (—8.8)	332.4 (41.2)
74. 1.1	306.9 (28.0)	154.9 (11.5)	156.9 (46.2)	186.6 (66.9)	84.1 (—12.4)	258.0 (12.2)
2.4	360.0 (26.3)	173.6 (—1.4)	164.7 (36.5)	213.8 (66.6)	77.0 (—18.2)	279.6 (3.4)

※( )內는 前年및前年同期比 增減率임 資料：韓國銀行

<표2>名國의 交易條件比較 (1970=100)

		1973.	73. 1.4	2.4	3.4	4.4	74.1.4
資源未保有國	韓國	93.6 (—5.1)	96.0 (—1.5)	94.1 (—5.3)	93.0 (—7.3)	88.8 (—8.8)	84.1 (—12.4)
	日本	99.8 (—4.7)	102.0 (0.1)	97.8 (—5.1)	100.7 (—3.8)	99.0 (—1.7)	81.0 (—20.6)
	대만	91.6 (—3.6)	94.7 (—7.7)	93.4 (—7.6)	91.2 (—2.9)	89.7 (—5.4)	88.4 (—6.7)
	英國	88.8 (—12.4)	96.7 (—5.8)	92.8 (—9.3)	95.0 (—7.0)	84.1 (—14.7)	76.9 (—20.5)
	獨逸	102.4 (—3.2)	102.6 (—3.5)	102.2 (—3.1)	104.6 (—2.2)	100.2 (—4.0)	92.6 (—9.7)
資源保有國	美國	92.3 (—2.3)	93.8 (—2.7)	86.8 (—7.8)	93.3 (0.2)	91.5 (2.6)	85.3 (—9.1)
	카나다	100.9 (3.1)	99.6 (3.1)	99.9 (2.5)	101.3 (3.3)	106.1 (7.1)	107.5 (7.9)
	호주	133.8 (29.4)	132.7 (39.2)	130.4 (32.0)	135.5 (31.3)	134.9 (16.3)	155.7 (17.3)
	필리핀	90.4 (27.9)	74.7 (—5.2)	91.4 (29.6)	98.2 (43.1)	95.1 (46.1)	98.5 (31.9)
	이란	149.6 (22.2)	122.4 (—3.2)	126.2 (1.8)	130.4 (7.7)	215.1 (182.4)	447.6 (265.7)

※( )內는前年및前年同期比 增減率임 資料：韓國銀行

二、輸出不振要因

최근의 우리나라의 輸出不振要因은 첫째로 우리나라의 主要輸出市場인 美國과 日本의 불황으로 海外需要가 감소한데 기인한다。최근의 美國의 失業率은 5%를 넘어섰고 포드대통령의 인플레抑制政策으로 輸入需要는 감소되고있다。日本도 總需要를 억제하기위하여 圓貨의 平價를 단행하고 外貨의 對外流出을 억제하기 위하여 輸入을 억제하고있다。둘째로 오일波動으로 原油등 主要輸出用原資材價格이 인상됨에 따라 輸出採算性이 악화됨에 기인한다。우리나라는 공업용原資材 55%, 資本財 27%를 輸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輸入依存型 輸出은 원자재가격상승으로國際競爭力面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있다。

셋째로,「스미소니안」體制의 붕괴에 따른 선진각국의 경쟁적인 平價切下는 國際通貨의 안정을위협하고 있으며 이것도 輸出不振의 요인이 되고있다。

넷째로 우리나라商品의 交易條件이 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輸出不振의 요인이 되고있다。韓國銀行이 분석한「상반기중의 貿易指數및 商品交易條件動向」에의하면 주오수출입상품의 收支差를 純商品交易條件은 73년 1・4분기부터 계속악화되기시작하여 74년 1・4분기및 2・4분기에 들어 그폭이 확대되었으며 所得交易條件도 73년도의 48・8%(前年對比) 개선에서 74년 1・4분기엔 12・2%, 2・4분기엔 2・4%의 개선으로 대폭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輸出商品의 純商品交易條件이 가속적으로 악화되고있는것은 輸出商品單價의 상승폭에 비해 73년말의 資源波動을 계기로 輸入商品의 單價上昇幅이 월등하게 높았기 때문이다。

73년 하반기이후 자원 파동으로 각종 원자재가격이 폭등하자 주요원자재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우리나라로서는 交易조건이 가속도적으로 악화될수밖에 없었다。輸出單價指數는 1・4분기및 2・4분기중에 前年同期比 46・2%및 36・5%의 上昇幅을 보인데비해 輸入單價지수는 66・9%및 66・6%씩으로 올라 수입단가가 수출단가보다 거의 2배 정도나 올랐다。輸出商品의 원가가 상승하였더라도수입이 줄거나 수출수량이 크게 늘어난다면 薄利多賣로 赤字幅은 다소 줄일수 있는것이다。소득교역조건은 73년 4・4분기의 332・4에서 74년 1・4분기에 258・4에서 277・9로 떨어졌으나 2・4분기에 279・6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것은輸出가격의 마진은 줄고 있으나 수출량의 증가로 전체적인 소득교역조건이 좋아지고 있는것으로 풀이될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출은薄利多賣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고있다。상품교역조건의 악화현상은 日本, 대만, 영국및 서독등의 資源不保有國의 共通的인 現象이기도하다。

각국의 교역조건을 비교해 보면前年同期對比 今年 1・4분기중에일본 20・6%, 英國은 20・5%, 西獨 9・7%, 대만 6・1%해 資源保有國은 상대적으로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석유가격의 인상으로 이달이 1・4분기중 전년同期比 265・7%나 개선되었고 필리핀은 31・9%, 호주 17・3%캐나다 7・9%씩 각각호전되었으나미국만은 자원보유국이면서도 각종수입가격의 상승으로 9・1%나악화되었다。

三、換率引上이韓國經濟에끼치는影響

許 衛
〈經商大敎授・經博〉

業界에서 變動換率制의 기능회복을 주장함으로써 經濟界의 의견은 換率引上論으로 기울어지고 있으나 學界에서는 賛反 양론이 맞서고 있다。

환율인상론의 이론적 근거는 현재의 경제성장을 타개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수단은 환율의 인상이며 환율인상이 수출상품의 國際競爭力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특히 고도의 국내경제성장을 주도해온 輸出의 둔화는 거의 전산업에재고격증, 조업단축, 倒産, 실업증대를 유발하여 불황을 가속화시키고있다。수출업계는 國內外物價騰貴로 구매력 평가면에서 〈원〉貨價値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換率을 72년말이후 400대1로 고정시킴으로써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이약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換率引上은 國內經濟의 격심한 副作用을 일으킨다는問題點이 있다。換率引上은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지만 수입의존적이고 輸入유발형 貿易構造를 가진 우리나라의 經濟構造下에서는 수입감소는 기대할수 없으며 物價가 급등하게 된다는 인과관계가 있다。

「갈브레이스」(K.B.Galbreith)가 지적한바와 같은 社會的不均衡(Social Unbalance) 때문에 평균實質所得水準에 의하여 絶對的으로는 상승하나 相對的으로는 악화하는 낙지오인」의 비율은 저하하며 이와같은 事情때문에 平均實質所得水準의上昇에 따르는 貧富의 格差는 상승정도보다 遞減한다。

이글에서는 최근의 輸出不振要因과 交易條件을 분석하고 환율인상이 韓國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輸出增進方案에 대하여 論하고자 한다。

二、輸出增進方案

1、輸出不振要因

최근의 우리나라의 輸出不振要因은 첫째로 우리나라의 主要輸出市場인 美國과 日本의 불황으로 海外需要가 감소한데 기인한다。최근의 美國의 失業率은 5%를 넘어섰고 포드대통령의 인플레抑制政策으로 輸入需要는 감소되고있다。日本도 總需要를 억제하기위하여 圓貨의 平價를 단행하고 外貨의 對外流出을 억제하기 위하여 輸入을 억제하고있다。둘째로 오일波動으로 原油등 主要輸出用原資材價格이 인상됨에 따라 輸出採算性이 악화됨에 기인한다。우리나라는 공업용原資材 55%, 資本財 27%를 輸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輸入依存型 輸出은 원자재가격상승으로國際競爭力面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있다。

셋째로,「스미소니안」體制의 붕괴에 따른 선진각국의 경쟁적인 平價切下는 國際通貨의 안정을위협하고 있으며 이것도 輸出不振의 요인이 되고있다。

넷째로 우리나라商品의 交易條件이 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輸出不振의 요인이 되고있다。韓國銀行이 분석한「상반기중의 貿易指數및 商品交易條件動向」에의하면 주오수출입상품의 收支差를 純商品交易條件은 73년 1・4분기부터 계속악화되기시작하여 74년 1・4분기및 2・4분기에 들어 그폭이 확대되었으며 所得交易條件도 73년도의 48・8%(前年對比) 개선에서 74년 1・4분기엔 12・2%, 2・4분기엔 2・4%의 개선으로 대폭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輸出商品의 純商品交易條件이 가속적으로 악화되고있는것은 輸出商品單價의 상승폭에 비해 73년말의 資源波動을 계기로 輸入商品의 單價上昇幅이 월등하게 높았기 때문이다。

73년 하반기이후 자원 파동으로 각종 원자재가격이 폭등하자 주요원자재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우리나라로서는 交易조건이 가속도적으로 악화될수밖에 없었다。輸出單價指數는 1・4분기및 2・4분기중에 前年同期比 46・2%및 36・5%의 上昇幅을 보인데비해 輸入單價지수는 66・9%및 66・6%씩으로 올라 수입단가가 수출단가보다 거의 2배 정도나 올랐다。輸出商品의 원가가 상승하였더라도수입이 줄거나 수출수량이 크게 늘어난다면 薄利多賣로 赤字幅은 다소 줄일수 있는것이다。소득교역조건은 73년 4・4분기의 332・4에서 74년 1・4분기에 258・4에서 277・9로 떨어졌으나 2・4분기에 279・6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것은輸出가격의 마진은 줄고 있으나 수출량의 증가로 전체적인 소득교역조건이 좋아지고 있는것으로 풀이될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출은薄利多賣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고있다。상품교역조건의 악화현상은 日本, 대만, 영국및 서독등의 資源不保有國의 共通的인 現象이기도하다。

각국의 교역조건을 비교해 보면前年同期對比 今年 1・4분기중에일본 20・6%, 英國은 20・5%, 西獨 9・7%, 대만 6・1%해 資源保有國은 상대적으로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석유가격의 인상으로 이달이 1・4분기중 전년同期比265・7%나 개선되었고 필리핀은 31・9%, 호주 17・3%캐나다 7・9%씩 각각호전되었으나미국만은 자원보유국이면서도 각종수입가격의 상승으로 9・1%나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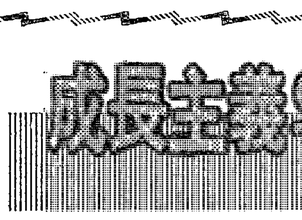
三、換率引上이韓國經濟에끼치는影響

業界에서 變動換率制의 기능회복을 주장함으로써 經濟界의 의견은 換率引上論으로 기울어지고 있으나 學界에서는 賛反 양론이 맞서고 있다。

환율인상론의 이론적 근거는현재의 경제성장을 타개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수단은 환율의 인상이며 환율인상이 수출상품의 國際競爭力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특히 고도의 국내경제성장을 주도해온 輸出의 둔화는 거의 전산업에재고격증, 조업단축, 倒産, 실업증대를 유발하여 불황을 가속화시키고있다。수출업계는 國內外物價騰貴로 구매력 평가면에서 〈원〉貨價値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換率을 72년말이후 400대1로 고정시킴으로써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이약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換率引上은 國內經濟의 격심한 副作用을 일으킨다는問題點이 있다。換率引上은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지만 수입의존적이고 輸入유발형 貿易構造를 가진 우리나라의 經濟構造下에서는 수입감소는 기대할수 없으며 物價가 급등하게 된다는 인과관계가 있다。

「갈브레이스」(K.B.Galbreith)가 지적한바와 같은 社會的不均衡(Social Unbalance) 때문에 평균實質所得水準에 의하여 絶對的으로는 상승하나 相對的으로는 악화하는 낙지오인」의 비율은 저하하며 이와같은 事情때문에 平均實質所得水準의上昇에 따르는 貧富의 格差는 상승정도보다 遞減한다。



〈經商大敎授・經博〉

國內經濟고려 賛・反論

換率引上

換率10%引上時 物價3%上昇

交易條件・輸出採算性 惡化

1、經濟成長과 遞減하는福祉効果

최근 10년대의 高度성장의결과는 GNP의 實質値나 국민의 실질평균所得을 크게 증대시킨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국민생활의 滿足度에 있어서는 經濟성장의「마이너스」효과를 輕視함으로써 성장에 比例하여 증대하였다고는 볼수 없다。

물론 만족도라면지 福祉의식은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것으로서 客觀的指標=客觀의 關係이다。

따라서 욕구를 만족시키는 財貨나「써비스」의 공급이 증대하였다고 할지라도 욕구가 증대하면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는것이다。그리고 경제의 고도한 성장이 오히려 국민생활의 만족도나 복지를 損傷시키는 작용을 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마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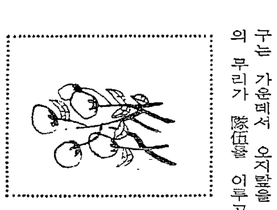
예를 들면 GNP의成長의 결과 財貨나 써비스가 절대적으로는 풍부하여졌다고 할지라도 그만큼 사괄뜨기가되는 東岳이었다。도사림과 도련과 안간힘이 엇갈려 애꿎은 나이테만 늘은 東岳이었다。돌담길을 두드리다 보니 남은 넋을 건너갔던 것이다。

그러나 거듭의 가을은 東岳에도 예외없이 찾아왔다。담풍이 지고 잎이 당구는 가운데서 오지랖을 여미는 마잡의 무리가 隊伍를 이루고있다。벤치에서도 진리의 主題思想과 고갯길에는 묵직한 가방의 떼가 묵묵히 기어오른다。노우트나 돌돌 만 그전의 그 패거리가 아니다。영차 영차 운동장을 헤드는 스크람의 데모隊도 한결같이 묵직한 가방이 들려 있음이 그 證明이다。추수의 한철 結果의 철에 굳게 닫혀진 校門을 바라보며 모처럼의 분위기가 식지마소사 가만히 합장을 한다。

추수의 가을이요 회상의 심마리를 푸는 계절이다。색삼스럽게 이제야 날버둥을 발자할 東岳이었던가 생각할 때 징숙는 고개가 무거워 짐짓 눈을 돌리긴 하지만, 그것이 어엿한 現實이니 발버둥이 도리어 무색하다。

사실『一覽衆山小』(한번 못산의 작은것을 바라보다)의 기백을 잊은 東岳은 일찌기도 없었다。다만 그것이 他에 눈리고 힘에 부쳐을 뿐이다。리더가 바뀌고 走者가 달라질 때보다 마련도 많고 사연도 많은 우리 東岳이었다。헐뜯어 기운 집에 大木만이 고자라 들고 서성거렸다。

꿈이 꿈을 낳고 그꿈이 또다시 꿈을 그리다보니 그 또한 꿈이었다。내가 아닌 남이 우리가 아닌 나가 꼬리를 흔들었다。「새歷史의 創造」를 앞세운 페인트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한눈을 팔다 그만 사괄뜨기가되는 東岳이었다。도사림과 도련과 안간힘이 엇갈려 애꿎은 나이테만 늘은 東岳이었다。



經濟政策의 方向과關聯하여

成長主義의 再檢討와 福祉効果의 重視

〈經商大敎授・經博〉

許 衛

하여졌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는 악화한 財貨나, 서비스와 상대적으로 악화한 소득층, 즉 衣食이나 耐久消費財등의 個人財는 현저하게 증대한데 대하여 공공적 시설이나 서비스등의 福祉關聯의 公共財의공급의 상대적 지연이나 所得과 富의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의식등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經濟의 성장과정에 있어서는 상대적일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저하된다고 추정되는 복지요인도 있다。예를들면 公害와 環境破壞에의한 환경의 安全性과 快適性·美觀등의 저하, 과도한 기계화와 대규모화에 의한 人間疎外 내지 정신적「커뮤니티」적 요소의 파괴, 인플레에 의한 생활불안의 증대, 국제면에서의 악영향등이 또한 바로 그러한것이다。

이리하여 福祉變因은① 경제성장에따라, 비례적으로 누진하는 실질소득수준과 ②경제성장에 따라 절대적수준에서는 상승하지만 생산성이나 실질소득수준의 상승에는 미치지 못함으로서 相對的으로는 저하하는 요인과③ 경제성장에 따라 절대적으로 악화하는 요인등으로 大別할 수가 있다。

대체적으로는 생산성과 소득수준이 낮은 國家에서는 경제성장의 限界福祉의 기여는 크며 다른 복지요인의 비중은 輕하다。그리고 광업화의 진전이 부족한 나라에 있어서는 평균실질소득수준의 상승이 환경의 파괴나 인간소의문제를 심각하게 함으로써「경제성장에 따라 절대적으로 악화하는福祉變因」을 주장함으로써 經濟界의 의견은 換率引上論으로 기울어지고 있으나 學界에서는 賛反 양론이 맞서고 있다。

환율인상론의 이론적 근거는현재의 경제성장을 타개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수단은 환율의 인상이며 환율인상이 수출상품의 國際競爭力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특히 고도의 국내경제성장을 주도해온 輸出의 둔화는 거의 전산업에재고격증, 조업단축, 倒産, 실업증대를 유발하여 불황을 가속화시키고있다。수출업계는 國內外物價騰貴로 구매력 평가면에서 〈원〉貨價値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換率을 72년말이후 400대1로 고정시킴으로써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이약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換率引上은 國內經濟의 격심한 副作用을 일으킨다는問題點이 있다。換率引上은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지만 수입의존적이고 輸入유발형 貿易構造를 가진 우리나라의 經濟構造下에서는 수입감소는 기대할수 없으며 物價가 급등하게 된다는 인과관계가 있다。

「갈브레이스」(K.B.Galbreith)가 지적한바와 같은 社會的不均衡(Social Unbalance) 때문에 평균實質所得水準에 의하여 絶對的으로는 상승하나 相對的으로는 악화하는 낙지오인」의 비율은 저하하며 이와같은 事情때문에 平均實質所得水準의上昇에 따르는 貧富의 格差는 상승정도보다 遞減한다。

2、社會的不均衡과 分配의 不公正是正

위에서와 같은 結果를 피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는 복지관련의 社會資本과 社會復귀스등의 公共財의 私的財에 대한 공급의 지연을 회복하여 절대적수준으로는 상승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악화시켜 불가상승및 환율인상의 국제수지를 악순환을 가져 오게 한다。

환율을 10% 인상하면 국내도매물가는 3%가 오르게 된다。이에 반해 현재의 수출부진이해외수요의 감퇴에 원인이 있는만큼 환율인상만으로 수출가격의경쟁력이 강화되어 輸出需要를 일으킬 수 있는냐 하는 것은 문제점이 되어진다。

환율인상은「도입원료款의 원리금상환부담을줄여 가중시킨다。74년 8월말 현재 도입차관의 미상환분은32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수출부진에 따른 불황은 너무 심각하며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섬유의 계는 재고가 증가하고 있고조업단축을 하고있다。가장 우려되는 것은 실업의 유발이다。

그러나 환율인상의 효과는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制限的으로나 타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 즉 전체국민경제에 미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된다。

국내경제의 對外依存度가 70%를 초과하고있는 만큼 환율조정은 과거의 引上폭와는 비교할수 없을 만큼 국내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四、맺는말

이상에서 논급한바와 같이 최근의 수출부진의 原因이 환율의 고정으로 인한 輸出商品의 가격경쟁력의 취약에 있지 않고 해외수요의 감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환율인상은 신중히 결정해야되며 우선은 환율인상이외의 政策的 手段으로 오늘날의경제불황과 수출부진을 타개해야될 것이다。

輸出增大의 요인에는 品質, 價格, 市場및 관매촉진등이 있으며 품질면에서는 高價品을 개발하고 품질을 고급화시켜야 되며 적극적인 수출「마케팅」活動을강화하여 해외수요자의기호에 알맞는 製品을 생산해야되고 디자인 포장등도 개선해야될 것이다。

輸出支援方式은 直接的인 것보다 間接的 方法을 채택해야되며 직접적인 輸出支援은 相對政府의 수입제한조치를 초래케될 우려가 있다。

資源未保有國이고 낮은 外貨稼得率과 수입유발형무역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海外與件의 好轉만을 앉아서 기다릴수 있는 형편이 못됨다。不測한 海外與件에 대한 대책수립도 없이 交易條件의 惡化에도 불구하고國際「인플레」로인한 수출가격상승으로 금년도 수출목표만을 자랑하여서는 아니된다。

交易條件의 악화는 무역이익의 감소와 외화가득율의 저하, 무역수지개선효과의 감소등 국민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수출산업의 육성에는 교역조건의개선문제를 고려하여 그品目에 대하여 外國에서의 所得彈力性은 크나 상대국의 사정으로 국내생산이 증가하지 않는 품목을 선택 施設이나 복지시설의 빈곤, 課稅의 不公正과 커다란 貧富의 差등은 상대적으로 滿足度를 높게하는 耐久消費財의供給, 收入, 생활의 편리성 등을 輕視함으로써 成長의 重點을 두어야 할 때에 到達한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勤勞者의 不滿의 최대 주요原因으로 社會的 公共財의 供給, 福祉관련의 公共財인 公共施設이나 복지시설의 빈곤, 課稅의 不公正과 커다란 貧富의 差등은 상대적으로 滿足度를 높게하는 耐久消費財의供給, 收入, 생활의 편리성 등을 輕視함으로써 成長의 重點을 두어야 할 때에 到達한 것으로 믿는다。

現代에 있어서는 평등의 公共財의 供給과 分配의 不公正은 국민의 불만을 높아지며 복지는 손상된다。

福祉意識은 主觀·相對的

요필 大增의 供給의 公共財 福祉

是正을 比例 充足에 欲求와 逆効果 是正의

3、過少評價될수 없는 經濟成長의「마이너스」効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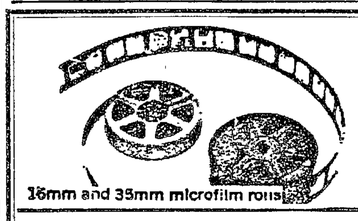
經濟成長이 國民福祉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볼수있는 또다른면은 정부나 경영자나 일반국민을 막론하고 경제성장의「프리스」효과에사로잡혀 성장에 따르는「마이너스」효과를過少評價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K・보울딩」은 이를 간파하여 말하기를「사람들은「프리스」를과대평가하고「마이너스」를과소평가하는 경향이있으므로「프리스」가산출되어야할 생산공정이너무나 많은「마이너스」를산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였다。공해문제나 교통사고등의환경의 파괴와 기계화에의한 인간소외의 문제등은 그 좋은 예라고하겠다。

그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환경과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의 제거를 정부나 기업은 최우선적으로 할을 필요로 한다。첫째로는 공해의 방제와 생활환경의 快適性(amenity)을 손상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快適하면하면서도 美的인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야하며, 둘째로는 노동면에서는 노동생활의 質의 적극적 개선을 필요로하며 이 외에도 성장경제하에서의 資源不足과 각종의 이익집단의 競合的인 소득인상은 인플레의 요인이 되는 생활불요을 초래하였지만 물가동귀에의한 불안이 크다면 가령 가상승분을 공제한 실질소득의상승이「플러스」라 할지라도 국민의 불만은 높아지며 복지는 손상된다。

「피구(A.E.Pigou)」의 말과 같이 福祉라는것이「國民의 滿足 혹은 不滿足의 狀態」를 말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효율적인 복지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私的財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을계속할것이아니라 福祉關聯의 公共, 財供給의 增加에의한 사회적 불균형의是正, 物價上昇, 公害, 環境破壞의克服에의한生活의安定, 安全性및快適性의改善에 政策의 重點을 두어야 할 때에 到達한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勤勞者의 不滿의 최대 주요原因으로 社會的 公共財의 供給, 福祉관련의 公共財인 公共施設이나 복지시설의 빈곤, 課稅의 不公正과 커다란 貧富의 差등은 상대적으로 滿足度를 높게하는 耐久消費財의供給, 收入, 생활의 편리성 등을 輕視함으로써 成長의 重點을 두어야 할 때에 到達한 것으로 믿는다。



이런분을 찾고 있읍니다
어떤 形態의 마이크로 필름이든지 復元및 複寫가 必要하신분!
마이크로필름 用役拜受中
相談設計 施工診斷
出張撮影 永久現像
完全復元 迅速複寫
마이크로필름·亦是 專門家 한국마이크로 필름에 外注가 可。
IMC. NMA正会員
韓國마이크로필름서비스센터
서울·종로5가 450 (로얄빌딩803) TEL. 26-2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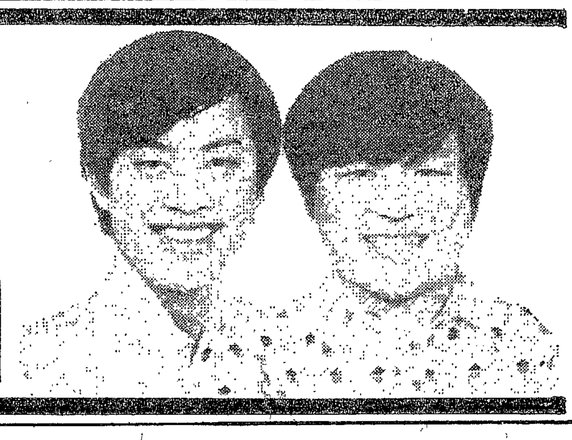
(고려병원·김희준안과지정)
고려안경원
문화방송→광화문쪽으로30m ⑫0524

電子計算機—
COBOL
—理論과 實際—
JAMES A. SAXON 著
安 思 明
羅 漢 龍 共譯
COBOL 프로그램 自習書로最適!
日 新 社 刊 값1천2백원

男·女 東大生
아르바이트
◎여가를 선용하여 참되고보람찬 내일을약속하며 학자금 및 용돈을 마련해 봅시다
◎주불제
파고다극장 옆 홍치과 3층
⑫9033

月刊考試
11月號 450원
高等考試案內
姜昌雄編著
菊版 537面 定価 1,800원
要点整理 財政学
韓澤珠著
4×6版 228面 定価 700원
法學社 対替口座 서울1022
총판;세종서원 ㉗2827

미국 Bausch & Lomb제품
첫날부터 편하게 쓸수있는
소프트렌즈
마이콘 C 렌즈
는
서울 콘택트 렌즈
(김영택 안과내)
●자세한 설명서 우송·무료상담 환영●
종로 1가28 (부교동빠스정류장옆)
☎75-7062

톱스타 윤항기와 어니언스 파노라마 전속출연!
＊매일밤 빅7스테이지 리싸이틀＊
—500원으로 즐길수있는 대폭인하가격—
출연진
윤항기와 키브러더스
김훈과 트리퍼스·
어니언스·박상규·홍민
민들레·MC 지명길
주간다실·야간생맥주, 파라다이스, 그린존
파노라마
종로화신옆 아카데미극장앞 지하철입구
◎생맥주 500cc…190원
◎각종안주……250원


外國語敎育院「오디오 센터」

工 問題點및 利用實態

○…本校에「산 外國語」敎育의 일환으로 가장…○
○…절실한 必要性에 의해서 外國語敎育院이 設立…○
○…된지도 11년을 헤아리게 되었다. 다음은 본교 外…○
○…國語敎育院이 지난 5月20日부터 6月20일까지 한달간…○
○…「聽覺室」을 利用하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調査한 앙케이…○
○…트를 중심으로 쓴 企劃記事이다. 전학년중 응답희망자에…○
○…한해서 자발적으로 쓰게한 앙케이트의 設問內容은…○
○…①어느 프로를 가장 많이 듣는가? ②도움이 되…○
○…는가? ③건의사항 등이었다. <편집자註>…○

◇各單大·學年別 聽覺室利用實態

(단위 : 名)

學年 / 單大	1	2	3	4	計
佛敎大	75	7		10	92
文理大	32	6	9	3	50
法政大	24	31	5	9	69
經商大	93	188	18	8	307
工 大	63	19	25	12	119
農 大	30	7	11		48
師 大	108	5			113
計	425	262	72	42	801

<자료 : 外國語敎育院제공>

「聽覺室」은 「산 外國語」敎育의 産室

器材등 施設具備는 국내 大學중 最高
利用率—經商大、內容別—중급회화가 首位

外國語敎育院의 「산 外國語」敎育의 우리가 外國語를 배우는 것은 文法과 構文에 지름길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화할때 직접 執着하는 그 전부터 외국인과 얼마고해도 과히 틀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다행히 이러한 「교육」의 도입을보아 「듣고」「말하고」「읽고」「쓰는」 4단계의 교육방식에서 進展되었다. 本校에서도 이 제 1學年 1·2學年그룹과 3·4學年그룹을 形成하고 있는데 이는 高學年일수록 「앙케이트」에 無誠意하다는 點과 실제 「청각실」을 利用할 필요성이 一般的으로 크지 않다는 點이 그 무엇보다 高學年들에겐 「청각실」에서 會話中心의 利用할수 있는 英語보다는 時事英語나 實務英語등 特露에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는 결과도 된다.

또 하나는 「청각실」이 開設되기 이전에 入學한 現3·4學年들은 그 利用方法을 기회가 적었던 점으로 미루어 高學年의 利用實態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의 하나로 보인다.

反對로 1學年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은 정규 「커리큘럼」속에 英語實習(0·5學點)이 1주 1시간씩 배정되어 同院을 관계로 빈번하게 되고 또 利用方法과 그 效果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利點이 作用한 것이다.

이밖에 영어는 물론 獨·佛·日語등 각종 外國語 「테잎」과 음악 감상을 위한 音盤등을 備置해놓고 학생들의 요구에 응하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의 利用度는 어떻게 나타나고있는가?

우선 各 單大別로 보면 圖書가 보여주듯이 經商大가 首位로서 다음順位인 工大와는 심한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利用實態가 가장 부진한 農大나 文理大와는 比較할 수없을 정도의 현격한 差異를 보여준다.

이것은 아직도 英語를 就職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잔존하는 관념이 이러한 學問的으로 깊이 다루어야 하는 文理大의 利用實態가 낮고 反對로 經商大나 공대의 利用率이 높다는 點에서 쉽게 알수있다.

다음으로 學年別 利用狀況을 1→4학년순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 숫자는 高學年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이 特異하다. 또 이 統計는 1·2學年그룹과 3·4學年그룹을 形成하고 있는데 이는 高學年일수록 「앙케이트」에 無誠意하다는 點과 실제 「청각실」을 利用할 필요성이 一般的으로 크지 않다는 點이 그 무엇보다 高學年들에겐 「청각실」에서 會話中心의 利用할수 있는 英語보다는 時事英語나 實務英語등 特露에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는 결과도 된다.

또 하나는 「청각실」이 開設되기 이전에 入學한 現3·4學年들은 그 利用方法을 기회가 적었던 점으로 미루어 高學年의 利用實態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의 하나로 보인다.

反對로 1學年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은 정규 「커리큘럼」속에 英語實習(0·5學點)이 1주 1시간씩 배정되어 同院을 관계로 빈번하게 되고 또 利用方法과 그 效果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利點이 作用한 것이다.

이밖에 영어는 물론 獨·佛·日語등 각종 外國語 「테잎」과 음악 감상을 위한 音盤등을 備置해놓고 학생들의 요구에 응하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의 利用度는 어떻게 나타나고있는가?

우선 各 單大別로 보면 圖書가 보여주듯이 經商大가 首位로서 다음順位인 工大와는 심한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利用實態가 가장 부진한 農大나 文理大와는 比較할 수없을 정도의 현격한 差異를 보여준다.

이것은 아직도 英語를 就職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잔존하는 관념이 이러한 學問的으로 깊이 다루어야 하는 文理大의 利用實態가 낮고 反對로 經商大나 공대의 利用率이 높다는 點에서 쉽게 알수있다.

다음으로 學年別 利用狀況을 1→4학년순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 숫자는 高學年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이 特異하다. 또 이 統計는 1·2學年그룹과 3·4學年그룹을 形成하고 있는데 이는 高學年일수록 「앙케이트」에 無誠意하다는 點과 실제 「청각실」을 利用할 필요성이 一般的으로 크지 않다는 點이 그 무엇보다 高學年들에겐 「청각실」에서 會話中心의 利用할수 있는 英語보다는 時事英語나 實務英語등 特露에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는 결과도 된다.

또 하나는 「청각실」이 開設되기 이전에 入學한 現3·4學年들은 그 利用方法을 기회가 적었던 점으로 미루어 高學年의 利用實態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의 하나로 보인다.

反對로 1學年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은 정규 「커리큘럼」속에 英語實習(0·5學點)이 1주 1시간씩 배정되어 同院을 관계로 빈번하게 되고 또 利用方法과 그 效果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利點이 作用한 것이다.

이밖에 영어는 물론 獨·佛·日語등 각종 外國語 「테잎」과 음악 감상을 위한 音盤등을 備置해놓고 학생들의 요구에 응하고

<31>

毛澤東의 人間 改造術

<李石佑著, 普文閣刊>

「파스파리니의 中共 노동수용소 체험수기를 李石佑씨가번역했다. 7년간의 수용소생활을 통해 모택동의 중공탈취에서 대약진 운동에 이르는 모순,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다.

잃어버린 얼굴

<프랑소와즈 사강著, 民音社刊>

프랑소와즈 사강이 아일란드로 이주한 뒤 처음으로 발표한 신작. 최근 귀국한 高大 金華榮교수가 번역했다. 사강은 이 작품에서 소설의 무대를 넓혀 외국인물을 발굴하는등, 독특한 상황속의 他人像을 그리고 있다.

베토벤

<안톤 신틀러著, 彰明社刊>

안톤 신틀러 原著를 趙念씨가 번역, 彰明社에서 文庫版으로 냈다. 「세기문고」의 하나로 수종의 베토벤 전기중 신틀러의것이다.

<중앙도서관제공>

「木曜 音樂會」

BUBS 교육방송국 제작 2부 주최 「목요음악감상회」가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2시간동안 교육방송국 공개홀에서 열린다.

이날 「레퍼터리」는 다음과 같다.

(1) Chopin : Piano concerto No. 1 E단조 Op 22 (쇼팡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2) Beethoven : Sonata No 9 A장조 Op47(일명 Kreutz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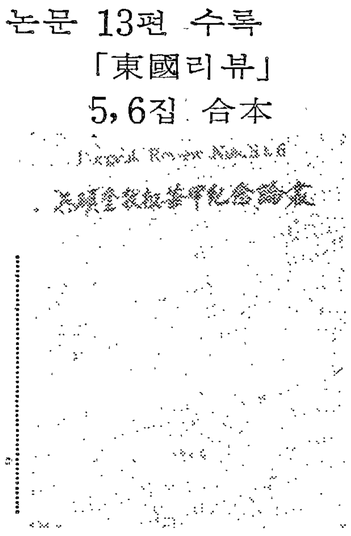
(3) Moussorgsky : Pictures at an exhibition(전람회의 그림)

(4) Mozart : The marriage of Figaro중에서 서곡 「다시는 알지 못하리」 「편지」의 2중창.

吳碩奎교수 華甲紀念論叢 刊行

각大學교수 논문 13편 수록

「東國리뷰」 5, 6집 合本



新刊 안내

문리대 영문과 吳碩奎교수華甲記念論叢간행위원회(대표=宋堯仁敎授)는 지난30일 회갑을 맞이한 吳碩奎교수의 화갑기념논총을 간행했다.

1년 8개월의 준비끝에 간행된 이 論叢은 英文학논문집인 「東國리뷰」 제5, 6집의 합본이기도하다.

여기에는 吳碩奎교수의 전공분야인 英美詩에 대한 고찰에서 英美소설, 희곡, 音聲學, 번역誌 등영문학 각분야의 연구논문이실려있다.

총 13편의 논문중 5편만이 본교교수논문이고, 나머지 8편은 국내외 각대학에서 보내온 논문으로 본 論叢의 많은 참여도는 주목할만한 것이다.

특히 美「아이오아」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있는 金永勳동문의 논문 「A Review of 『Gapping and the Order of Constitutents』 등은 특기해 볼만하다.

◇수록된 論文및 著書

▲엘리오트의 初期詩—주로 Laforgue의 영향면에서 (李昌培) ▲엘리오트의 觀念型(姜대건) ▲Satan小考 (柳 렴) ▲Chancer 詩이전의 ME Verse의 韻律 (金周賢) ▲셰익스피어의 心像 (金재남) ▲Humor in Fielding's Works (朴珍錫) ▲Richrdson의 작품에 나타난 悲劇性— Clarrisa를 중심으로(金福善) ▲Ah, Bartleby, Ah, Humanity! (梁炳鎬) ▲「金星」誌攷—韓國번역문학사의 입장에서 (金秉喆) ▲Predicate의 제약에 관하여(趙炳泰) ▲Passives, Pronouns, Themes and Rhemes (John Hinds) ▲A Review of 『Gapping and the Order of Constituents』 (金永勳) ▲Discourse Analysis in Translation (宋堯仁)

孟子思想의 理解

金吉卓

孟子의 政治思想

敎養學部 독서 콩쿠르 受賞作

맹자가 살던 戰國時代에 들어서자 周初에 完成되었던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이기적인 富國强兵主義가 성행하였으며 당시의 유교도들은 공자시대에 있었던 선한 학문태도를 거의 잃고 있었다. 여기에 자극을받은 옛 맹자는 유교를 부흥시키고 그 사상을 이루고 있다.

天命思想과 革命思想

天은 宇宙萬物의 주재자로서 우주만물을 創造지배, 감독한다는 것이 天命思想의 主題인데, 따라서 사람은 다 天의 衆子로서 天은 자기의 衆子인 인민가운데서 가장 덕망있는 한사람에게 命하여 天을 대신하여 인민을 통치하는데 그대신 통치자는 天의 아들이며 天意의 대행자이므로 옛날 요순임금과 같이 德이 훌륭해야되고 또 꾸준히 德을 쌓아서 天意를 나타내는 民意를 얻어야 하며 만약 天子가 德을 잃었을때에는 이미 天子로써 지위를 상실하고 一夫에 지나지않으며 다른 有德者가 나와서 이를 토벌한다는 思想이 孟子의 역성혁명사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상은 핵심을 이루고 있다.

天命思想과 革命思想

반드시 德을 잃은 자가 夏의 걸왕처럼 폭군이어야 하고 치는 者는 殷의 탕왕처럼 有德者라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 역성혁명사상은 농민에게 君主가 德을잃었을 때는 포악한 君主를 몰아내고 다른 有德者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는것이 아니고 군주에게 백성을 잘 다스리라는 일종의 경고로써 의의 소극적 의미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王道主義政治思想

맹자는 주로 梁의 혜왕, 齊의 선왕등의 문공에게 政治理論을 유세하였는데 그 이론은 王道의 도덕으로써 仁政을행하는 것이고 패도는 인정을 가장하여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구체적 방법으로서 농사에 힘쓰게하여 인민을 안정시키고 배움을 일으켜 人德孝悌의 道를 밝히자는 것이다. 그러나 恒産이 없으면 恒心이 없다는 맹자는 민중의 경제안정을 기초로 도덕과 王道의 仁政을 토대로 봉건 지배계급 체제의 지배계급에대한 피지배계급의 완전한 심복 및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를 최후의 목표로 한 것이다.

맹자의 性善說

맹자는 人性의 개념규정을 인간의 본능에 두지않고 도덕적 先天能力에 두고 心性을 도덕적인 면에서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心性은 善하며 인간은 측은지심(仁), 수오지심(義), 사양지심(禮), 시비지심(智)의 4가지를 가지고있다고 하였다. 이 인간의 性善에 대한 비유를 맹자는 「牛山」이 나무들은 일찌기 아름다웠으나 大國에 가까이 있어서 날벌과 도끼로 베어지고 말았으니 아름다울 수가 있으랴. 밤낮 자라나고 비가내려 싹이 나는 것이다. 그러나 牛羊을 몰아서 마구 먹여 벌거숭이 山이 되고 말았는데 사람들은 벌거숭이山을 보고 원래 나무가없었다고하니 이것이 어찌 山의 本性이겠는가」하고 비유했다.

맹자 思想의 비판

먹치주의와 왕도정치를 부르짖은 맹자가 항상 강조한 요순시대의 이상국가는 어디까지나 전설에 불과한 것이며 현실이 아닌것으로 이상에 기운을 두고 현실을 비교, 비판하고 먹치주의에 의한 이상의 도덕으로써 仁政을 행하는 것이고 패도는 인정을 가장하여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구체적 방법으로서 농사에 힘쓰게하여 인민을 안정시키고 배움을 일으켜 人德孝悌의 道를 밝히자는 것이다. 그러나 恒産이 없으면 恒心이 없다는 맹자는 민중의 경제안정을 기초로 도덕과 王道의 仁政을 토대로 봉건 지배계급 체제의 지배계급에대한 피지배계급의 완전한 심복 및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를 최후의 목표로 한 것이다.

맹자의 性善說

맹자는 人性의 개념규정을 인간의 본능에 두지않고 도덕적 先天能力에 두고 心性을 도덕적인 면에서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心性은 善하며 인간은 측은지심(仁), 수오지심(義), 사양지심(禮), 시비지심(智)의 4가지를 가지고있다고 하였다. 이 인간의性

인간은 도덕적 先天能力 있다고 治者의 被治者에의 寄生을 인정

확고한 信念과 氣慨의 哲人

主義로서 王道는 요, 순, 탕, 文武의 고대 聖王들이 천하를 다스리던 道(방법)를 말하는 것이다. 맹자는 王道는 仁

느낀점

그 이상이 현실에 아들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이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갔으며 「우리러 하늘에부끄럼없음이 없고 아래로굽어보아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것이 즐거움이다」라는 말은 항상 부끄러이 되새겨야할 말이라고 느껴진다. 또 그가 君主의 군주를 만나고자 했으나 그 군주 신하의 간언으로 만나지 못하여 실망했을때 이것도 天命이라 하고 쓸쓸히 한탄에서우리는 고독한 마음을 찾아볼수있고 齊의선왕이신하에 대해서 물었을때왕과 친척간인 신하는 직언을 몇번간해도 듣지않으면군주를 갈아버린다는 말을 君王앞에서태연히할 수있었던 그의 배짱, 기개, 신념을 닮고싶다.

<經商大·經營科>

現代 兒童文學의 復權

<1>

—특히 童詩를 中心으로—

金思林

우리가 兒童文學 장르에 속하는 作品들을 접할 때면 간혹 아동문학의 한계성을 느낄 때가 있다. 아동문학의 本領은 어린이의 心領에 言語를 심어 풍성한 心領의 결실을 채찍질하는 文學의 한 장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成人文學과 兒童文學의 한계성을 논하게 된다. 몇마디의 詩語(童語)를 잘못선택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초월한 예가 허다하며, 때문에 兒童文學에 있어서의 言語問題는 항상 정확한 이해로 選擇이 있어야한다.

아직도 「영이」와 「바둑이」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면에서 土俗的이기는 하지만 요즈음 처럼 급템포로 변하고 있는 세상에 어린이들의 生活도 항상 변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때문에 童詩에 있어서의 변모는 詩語選擇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히 어긋난 表現은 아니다. 어린이들은 새롭고 감각적인 면에 흥미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면에 치중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아동문학도 消滅狀態에 있다고 누가 부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날 아동문학도 기존 상태의 첨가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볼 수가 있다.

詩的童詩에서 繪畫的童詩돼야

言語선택은 정확한 理解필요

兒童文學에 既存상황 反映時急

이것은 그가 얼마나 성장하고있는가 하고 어린이들에게 큰 位置를 차지하고있다 옛말 수 있는 반면, 도 다른 면으로는 우리의 동시가 아직도 민요조의 형식을 탈피하지못하고 있다는 實證도 된다.

그러나 1960년초에 몇몇 시인들이 동시에 참여해서 새로운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있었다.

그분들의 작가수업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지난60년 「대지의 소나타」로 문단에 데뷰한 그는 중학재학중 「사화집」을 발간하는등 詩에 경도해왔다. 朴敬用 朴이도동과 송년시同人會를 비롯 崔계락 유경환 동과 童詩人 同人會活動을 해왔다.

가족관계는 부인 鄭春惠여사와 사이에 2男을 두고있다. 부인 鄭여사와는 본교국문과동창으로 재학중 「문학의 밤」때 당시 방송국에 있던 부인이 金同門의 詩를 낭송했던 것이 인연이 됐단다.

취미는 테니스, 탁구등 구기. 현재 대한교육연합회 참사로 있다.

<朱>

世宗兒童文學賞받은 金詩人

『복잡하고 냉정한 現代生活 속에서 人間回復의 방법으로서 童心을 노래한 것일뿐』이라고 소년한국일보制定 「제7회 世宗兒童文學賞을 受賞한 金思林(62·國文科卒)同門은 입을 열었다.

지난 7월 「少年東亞日報」에 발표된 「과수원의 食口」로 이번 文學賞을 탄 그는 곧이 자신의 詩에 대해 童詩라는 表現을 배제한다.

『童詩는 詩의 根本일수 있읍니다. 그 文學, 특히 순수라는 면에서, 또 우리가 童詩를 읽는 世代를 살아온 것이니까. 詩人의 開眼은 童詩일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내 詩가 곧 童詩는 아닙니다. 「안데르센」이나 다른 童話作家의 작품도 동화나 동시는 아니라고 생각들어요. 다만, 순수를 말했겠지요.』

詩를쓰게된 것은 병약했던 어린시절 어머님의 노고에 대한 위로의 노래에서 시작됐다고.

中高校 時節에는 소설가 오영수, 이주홍씨를 선생님으로 모셨다.

<同門·詩人>

言語선택은 정확한 理解필요

兒童文學에 既存상황 反映時急

<2>

1930년대 尹石重씨의 「발간령기」이후 우리의 童詩도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4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도 尹石重씨의 동요·동시를 읽을 때면 어린이들의 生活도 항상 변혁이나 또는 기존상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의 첨가나 삭제를 통한 부분적인 변혁,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美國의 유력한 교육기술지의 헨리·J·오토교수는 말하고 있다.

이들은 소위 謠的인 童詩를 繪畫的인 童詩로 변모시켜 보자는 일련의 작업을 했다.

다시말하면 재래의 동요·동시의 틀을 벗기고 새로운 詩의 가능성을 포착해 보자는 한걸음을 노력이 여실히 들어나 있단.

이들의 작업은 당시 아동문학계에서 난해시의 제거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새로운바람을 휘몰고왔다.

발짝이는 색깔별, 누가 먼저 보았나?

때때 아가씨가 물을 긷다가 우물물에 비친 별, 먼저 보았지.

—중략—

위의 작품은 尹石重씨의 「새벽노래」란 동시인데, 다음의 작품은 朴敬用씨의 「빈 가지에」란 작품의 앞부분이다.

빈 가지에
참새들이 모여 앉아
열매 되었네.
움직이는 열매.

—중략—

尹씨에 비해 朴씨의 작품은 열마나 감각적인가. 특히 쏘는 맛과 詩的인 면은 확실히 童詩壇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3>

다음으로 敎育公害를 들수가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흘러나오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CM「송」주제가, 아니면 학교나 가정 근처에서의 만화가게등은 올바른 兒童文學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고 또한 어린이들을 시들게 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여야 하는데 빨리 어른이 되어서도 안되며 어른같이 흉내를 내어서도 안된다.

「어린이는 어른의 싹이요, 秀才는 士夫의 앞이니, 이때 만일 火力이 모자라고, 단련이 서투르면 뭇 어린이들의 마음에 번져간다면 앞으로의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더욱더 유능한 작가나 시인이 아동문학에 참여하여야하고, 학재학중 「사화집」을 발간하는등 詩에 경도해왔다. 朴敬用씨의 「빈 가지에」란 작품의 앞부분이다.

빈 가지에
참새들이 모여 앉아
열매 되었네.
움직이는 열매.

—중략—

尹씨에 비해 朴씨의 작품은 열마나 감각적인가. 특특 쏘는 맛과 詩的인 면은 확실히 童詩壇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3>

다음으로 敎育公害를 들수가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흘러나오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CM「송」주제가, 아니면 학교나 가정 근처에서의 만화가게등은 올바른 兒童文學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고 또한 어린이들을 시들게 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여야 하는데 빨리 어른이 되어서도 안되며 어른같이 흉내를 내어서도 안된다.

「어린이는 어른의 싹이요, 秀才는 士夫의 앞이니, 이때 만일 火力이 모자라고, 단련이 서투르면 뭇 어린이들의 마음에 번져간다면 앞으로의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더욱더 유능한 작가나 시인이 아동문학에 참여하여야하고, 학재학중 「사화집」을 발간하는등 詩에 경도해왔다. 朴敬用씨의 「빈 가지에」란 작품의 앞부분이다.

빈 가지에
참새들이 모여 앉아
열매 되었네.
움직이는 열매.

—중략—

위의 작품은 尹石重씨의 「새벽노래」란 동시인데, 다음의 작품은